

| 발간사 |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5월 25일 전시 연합대학으로 처음 문을 열어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성장한 충남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며, 미래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오늘을 반성하고, 또한 현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계획하면서 인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가 60년의 역사를 되새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100년, 2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들은 단 한순간도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 보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해왔기 때문에 명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60년의 역사 동안 대한민국 교육계에 남겨 온 우리 충남대학교의 기록들도 지역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대학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60년사는 충남대학교의 탄생에서부터 성장,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국립대학으로 발돋움하기까지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60주년은 한 갑자를 돌아 맞이하는 축제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충남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간행한 충남대학교 60년사는 과거 선배들이 쌓아왔던 역사적 기록물이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살아 숨 쉬는 증거이며, 앞으로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1년 8월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오랜 여정 속에 60년사 발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기록들을 모으고 다듬어 충남대학교의 역사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주신 명평근 위원장을 비롯한 60년사 편찬위원과 김원식 단장 등 6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충남대학교 60년사 발간을 통하여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이 책이 충남대학교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5월 25일

충남대학교 총장 정 상 철